

작년 사망자 28.6만명 역대 최대... 짙어지는 '고령화 그림자'

[사망통계]

사망자 수, 4년째 최고치 경신... 고령인구 증가 영향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4.8%

고령화 심한 전남·경북·전북순으로 사망률 높아

지난해 우리사회의 사망자 숫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망자 수도 불어나는 추세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총 사망자 수는 28만5534명으로 전년 대비 1.7%(4707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782명

으로 전년에 비해 15명이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도 557.3명으로 1년 전보다 7.9명 늘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인구 증가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연령별로 보면 이같은 특징이 더욱 뚜렷히 나타난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는 12만 781명으로 전년 대비 7.1%(8476명)나 증가했다. 반면 8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모조리 사망자 수가 1년전보다 줄었다. 아울러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4.8%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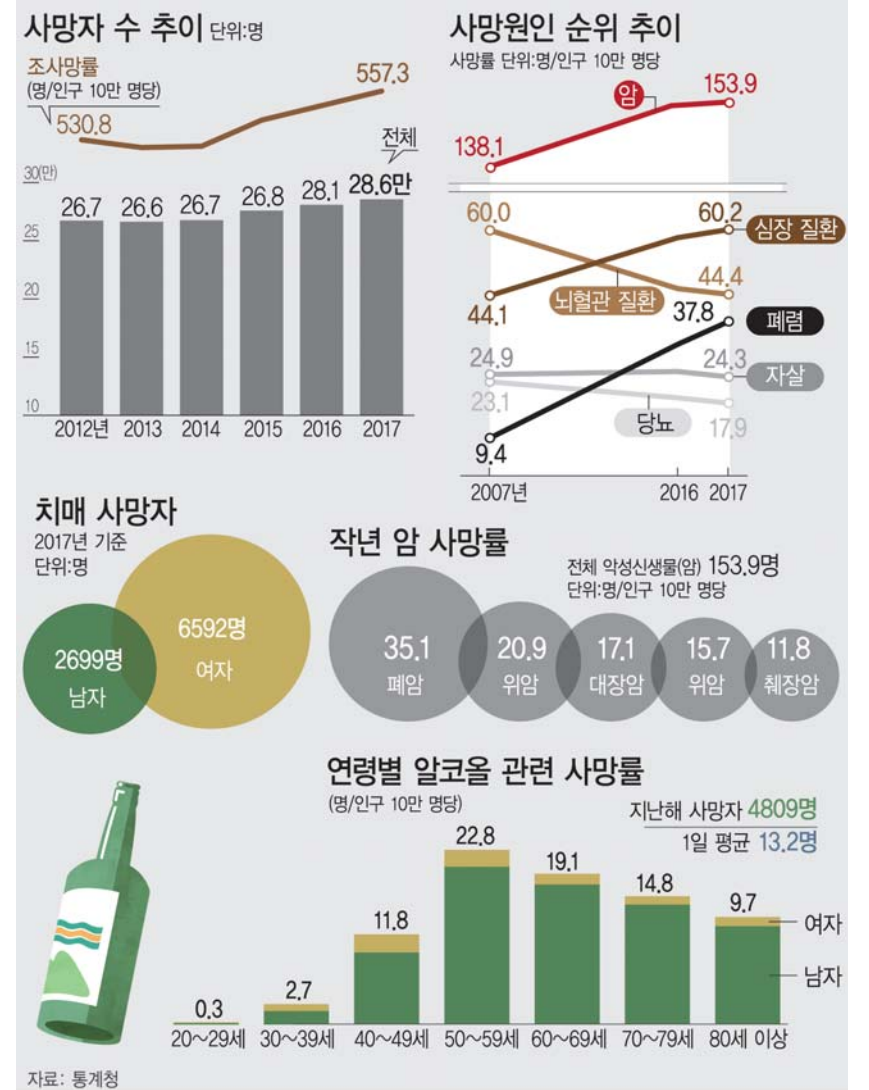
또한 고령화가 빠른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지난해 시도별 조

사망률은 전남(892.7명), 경북(794.5명), 전북(773.8명)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전남(22%), 경북(19%), 전북(19%)이 세 손가락에 들었다.

고령층 사망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두배 가까이 높았다. 남자 사망자 중 80세 이상은 31.4%에 그쳤으나, 여자 사망자 중 80세 이상은 60.5%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으로 보면 남자 사망자 수가 15만4328명으로 1년 전보다 1.2%(1799명) 증가했고 여자 사망자 수가 13만1206명으로 2.3%(2908명) 늘었다. 조사망률은 남자가 603.4명, 여자가 511.4명이다.

사망자 수 성비는 1.18명으로 나타났다. 남자 사망자가 여자 사망자의 1.18배라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4배, 60대가 2.61배, 20대가 2.22배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술로 사망할 확률, 남성이 여성의 7배 높다

남성이 술로 사망할 확률이 여성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알코올 사망자 수를 뜻하는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9.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이 술졌다 사고 타살 및 태아알코올 증후군과 같은 알코올 관련 간접 사망은 제외된 결과다.

한편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9291명으로 1년 전(9164명)보다 1.4%(127명) 증가했다. 혈관성 치매

으며 여자(25.7명)가 남자(10.6명)보다 2.4배 높았다. 전년 대비해 여자의 사망률은 4.1% 늘었고 남자의 사망률은 5.5% 줄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숨진 영아 사망자의 경우 1000명당 1년 전

맞이하기 전에 숨지는 영아를 나타내는 영아 사망률도 2.8명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남아의 사망률이 3.1명, 여아의 사망률이 2.5명으로 조사됐다.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므로 국민보건 상태의 측정지표로 널리 쓰인다.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9명보다는 낮지만 스웨덴(2.5명)이나 일본(2.0명)보다는 높았다.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51.7%)가 영아 사망 원인의 절반을 넘었다. 이중 '신생아의 호흡 곤란'이 12.0%로 집계됐다.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인 경우는 16.8%였다. 이중 '심장의 선천기형'이 나타난 경우는 5.6%다.

질병이환 및 사망 원인 중에선 '기타 불의의 호흡위험'이 2.8%로 가장 많았고 가해(타살)로 사망한 영아의 경우 전체의 1.7%로 전년

(1.3%)보다 늘었다.

출생전후기(임신 28주 이상 및 생후 7일 미만) 사망자 수는 총 963명으로 전년 대비 179명(15.8%) 줄었다. 28주 이상 태아 사망이 606명(전체의 63.6%), 7일 미만 신생아 사망이 347명(전체의 36.4%)으로 집계됐다.

출생전후기 사망률은 총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전년보다 0.1명(4.4%) 감소했다. 이는 OECD 평균(5.3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임신·분만과 관련한 질환으로 숨진 모성사망자 수는 28명으로 1년 전(34명)보다 17.6%(6명)

감소했다.

간접산과적사망은 6명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산과적 색전증, 분만 후 출혈 등 직접산과적 사망이 22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줄었다.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7.8명으로 전년 대비 6.5%(0.5명) 줄었다. 모성사망비는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숨진 여성을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다.

한국은 OECD 평균(8.2명)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모(母)의 연령이 40세 이상일 때 모성사망비가 15.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4세 이하일 경우는 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男 알코올 관련 사망률 16.4명...女는 2.3명

한 해 동안 술로 4809명 숨져...하루 평균 13.2명

(F01),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에 의한 사망만을 집계한 결과다.

인구 10만 명당 치매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매 사망률은 18.1명이다. 전년 대비 0.2명(1.2%) 늘었

(1154명)보다 13.3%(154명)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569명으로 56.9%를 차지했다. 영아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출생아 1000명당 출생 후 첫돌을

韓, 청년이 불행한 나라...10~39세 사망원인 1위 자살

10대 사망 중 자살 30.9%, 20대 44.8%, 30대 36.9%



10대와 20대, 30대까지 자살이 가장 주된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높았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은 10, 20, 30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다음 순위인 운수사고(17.7%)보다 크게 높았다.

20대는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중이 44.8%에 육박했다. 목숨을 잃는 경우 중 절반 가까이가 자살이라는 뜻이다. 3위 원인인 운수사고(14%)와의 격차는 세배 이상이다.

30대에서도 자살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2위 원인인 악성신생물(암)은 20.7%에 그쳤다.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비단 지난해의 일만은 아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40대와 50대의 자살 비중도 작지 않다. 40대는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19.0%로 앞(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50대도 자살 비중이 9.3%로 앞(38.1%) 다음으로 높았다.

60대부터는 자살 원인 중 자살 비중이 높지 않았다. 60대에서는

4.4%로 4번째 순으로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5순위 밖이었다.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1만2463명으로 전년 대비 629명(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4.1명이고,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를 보는 자살 사망률은 24.3명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률의 경우 전년보다 1.3명 줄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8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자살이)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타고 있다"며 "정부가 자살

수단을 미리 피해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많은 경우 농약으로 자살을 하는데, 판매나 보관을 금지하는 정책,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안정장치를 확대하는 부분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자의 자살률이 34.9%로 여자(13.8명)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를 위한 연령 표준화자살률은 23.0명이다. 리투아니아(26.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11.9명에 그쳤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